

현대차그룹, 인도에 혁신센터 세운다... 5년간 100억 투자

인도 친환경차 시장 공략 속도 IIT 등 3개 대학 업무협약 체결 배터리·전동화 분야 공동 연구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도 친환경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향후 5년간 100억원을 투자해 현지 대학과 배터리·전동화 분야 공동 연구 체계를 구축한다.

현대차·기아는 3일(현지시간) IIT(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인도 공과대학교) 3개 대학과 함께 '현대 혁신센터' 공동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현대차·기아 연구개발기획조정실장 성낙섭 전무를 비롯해 인도권역기획실 류재완 상무, 인도기술연구소장 이근한 상무 등 회사 관계자와 IIT 델리의 랑간 바네르지 총장, 비자야 케탄 파니그라히 학생처장 등 학교 관계자가 참석했다.

IIT는 1951년 설립된 인도 최고 수준의 공학 교육기관으로, 인도 전역에 걸쳐 23개 캠퍼스를 운영하며 혁신적



현대자동차·기아는 3일(현지시간) IIT(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인도 공과대학교) 3개 대학과 함께 '현대 혁신센터' 공동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현대차 인도권역기획실장 류재완 상무, 인도기술연구소장 이근한 상무, 연구개발기획조정실장 성낙섭 전무, IIT 델리 총장 랑간 바네르지 교수, IIT 봄베이 학장 사친 C 팻워드한 교수, IIT 마드라스 학장 마누 산타남 교수, IIT 델리 학장 프리티 란잔 판다 교수 /현대자동차그룹

인 연구와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공동 연구에는 특히 인도 학계 내 영향력이 우수한 ▲IIT 델리 ▲IIT 봄베이 ▲IIT 마드라스 등 최상위 3개 대학이 참여한다.

현대차·기아는 IIT 3개 대학과 함께 현대 혁신센터를 설립, 2025년부터 5년

간 약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배터리·전동화 관련 연구를 공동 수행하며, 소프트웨어 및 수소연료전지 등으로 협력 분야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 혁신센터는 인도 현지에 특화된 산학 협력 모델로서, 기업 및 동문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는 IIT 대학 내 전문

연구조직 'CoE(Centre of Excellence)'를 기반으로 한다. 현재 IIT 델리에 서만 22개의 'CoE'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협력은 단발성 기술 과제 중심으로 진행됐던 기존의 산학 방식과 달리, 우수 대학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수요에 기반한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현대 혁신센터를 통해 IIT의 우수 교수진과 공동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배터리·전동화 분야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신진 교수진으로부터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공모 받아 현지 시장에 특화된 기술 및 기능을 발굴하는 등 인도 내 미래 기술 핵심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연구개발기획조정실장 성낙섭 전무는 "이번 현대 혁신센터를 통해 인도 최고의 공과대학에서 글로벌 산업을 이끌어가는 우수한 인재들과 협력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현대차·기아는 인도 학계와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동반 성장하며 배터리·전동화 분야의 첨단 기술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산학 협력 추진이 최근 현대차 인도법인 IPO를 통해 마련한 자원의 현지 재투자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강남 한복판에 '사이버트릭' 등장 글로벌 전기차, 韓 시장 진출 고삐

테슬라, 7일 강남 스토어 오픈 모델 Y 프로모션 등 특별 혜택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BYD가 한국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새로운 전시장을 오픈하고 고객 소통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테슬라는 온라인 판매와 OTA(Over-the-air)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한 만큼 이번 오프라인 전시장 오픈에 두고 전기차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오는 7일 서울 강남 구 논현동에 국내 8번째 전시장인 '강남 스토어'를 오픈한다. 신사와 여의도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오픈한 테슬라 전시장이다.

강남 스토어는 약 480㎡(150평) 규모로 모델S, 모델X, 모델3, 모델Y와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릭' 등 테슬라의 5개 모델을 모두 전시한다.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테슬라 코리아 강남 스토어 전경.

모델3의 바디(골격)와 세시(뼈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입구에 차량의 골조를 전시한 것은 테슬라 차량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전시장 안으로 이동하면 모델 S, 모델 X, 모델 3, 모델 Y, 사이버트릭 등 테슬라 전 모델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가수 지드래곤이 타서 화제가 된 테슬라 사이버트릭을 직접 보고 탑승해 볼 수 있다.

강남 스토어를 찾는 고객은 테슬라 모델을 타고 한강을 낀 다양한 시승 코스를 체험할 수 있다. 맞춤형 구매 상담 서비스와 최고 인기 모델인 모델Y에 대

한 연말 특별 프로모션도 제공한다.

업계에서는 테슬라코리아가 국내 전시장 오픈을 통한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선 것과 관련해 BYD에 대응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BYD코리아는 내년 초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테슬라코리아 관계자는 "자동차 시장에 다양한 전기차가 등장하면 고객들이 다채로운 채널을 통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침체된 전기차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중점으로 기대했다.

/양성운 기자

두산에너지빌리티, 양수발전사업 본격 추진

"무탄소 발전 솔루션 제공 최선"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국내 양수발전사업 시장을 공략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국내 양수발전사업 참여에 본격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등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해 2038년까지 21.5GW(기가와트)의 장주기 에너지저장시스템(이하 ESS, Energy Storage System)이 필요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대표적인 ESS로 평가받는 양수발전의 향후 건설될 설비용량은 5.7GW(총 9기)에 달한다. 이 중 첫번째 사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13년 만에 충북 영동군에 500MW(메가와트) 규모의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흥천, 포천, 합천 등 다수의 양수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수 조원 규모의 주

기기 발주가 예상된다.

양수발전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는 ESS로, 전력수요가 적은 심야의 저렴한 전력을 이용하거나 주간에 태양광으로 발생하는 여유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수요가 증가할 때 상부댐의 물을 하부댐으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한다. 또한 안정적인 에너지 저장·활용이 가능하며 수명이 길고, 화재 등 위험성도 적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세계 ESS 설비 중 양수발전의 비중은 66.5%로 압도적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김종두원자력BG장은 "양수발전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며 "원자력을 비롯해 수소터빈으로 전환 가능한 가스터빈, 수력 및 양수발전의 주기기 공급까지 무탄소 발전 솔루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IG넥스원, 국방정보시스템 고도화 나서

군인공제회C&C 업무협약 체결

LIG넥스원이 국방 IT 기업인 군인공제회C&C와 국방정보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2일 군인공제회C&C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LIG넥스원 최종진 미래전략사업부문장과 군인공제회C&C 김원태 사장을 비롯해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우리 군의 정보 관리 및 공유 체계인 '국방정보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유지보수 등 관련



LIG넥스원 최종진 미래전략사업부문장(오른쪽)과 군인공제회C&C 김원태 사장이 2일 개최된 '국방정보시스템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업 전반에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TUV라인란드 'CSMS 레벨3' 인증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업계 최고수준 차량 보안·관리

LG전자가 업계 최고 수준의 차량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전장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LG전자는 최근 국제 공인시험인증

기관인 TUV라인란드로부터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 레벨3 인증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CSMS 인증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인포테인먼트, 텔레매틱스 등 전장 제품의 설계, 개발, 소프트웨어,

생산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보안이 제대로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모의 해킹 침투 테스트 등을 통해 철저히 역량을 평가한다.

LG전자는 지난해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인증 받는 CSM S레벨2를 획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실제 제품을 양산하고 있음을 인증 받는 레벨3를 받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